

# ‘병역혜택 덕분’ 손흥민 예상이적료 1억유로 돌파

AG서 1골5도움 기록 한국 대회 2연패 이끌어

아시아게임 금메달로 병역이 면제된 손흥민(26·토트넘)의 예상 몸값이 처음으로 1억유로를 돌파했다.

국제스포츠연맹(CIES) 축구 연구소는 10일(현지시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입은 손흥민의 이적 가치를 1억230만유로(약 1338억원)로 산정했다.

CIES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스위스 뇌시텔과 공동 설립한 독립연구센터다. 선수와 소속팀의 성적, 나이, 포지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수들의 몸값을 내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아시아게임에 와 일드카드로 참가해 1골5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대회 2연패를 이끌

었다.

1억230만유로는 CIES 축구연구소가 손흥민의 몸값을 분석한 이래 최고액이다.

손흥민은 2015년 이적료 3000만유로(약 393억원)에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지난해 12월 손흥민의 예상 이적 몸값은 6680만유로였다. 올해 1월에는 7260만유로로 올랐으며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마치고 나서 9980만유로를 기록하며 1억유로 돌파를 눈앞에 뒀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입성 후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2016~2017 시즌 정규리그 14골, 2017~2018 시즌 정규리그 12골)



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 최지만, 개인 통산 첫 끝내기 홈런 작렬

9회말 2사 1루 상황서 역전 투런포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사진 가운데)이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9회말 끝내기 홈런을 때려낸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최지만(27·탬파베이 레이스)이 바리그에서 개인 통산 최초로 끝내기 홈런을 때려냈다.

최지만은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9회말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을 때려냈다.

2회말 4점을 올려 4-1로 앞서가던 탬파베이는 7회초 4-5로 역전당한 후 좀처럼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4-5로 끌려가던 9회말에도 선두 타자 카를로스 고메스가 1루수 뜬

공으로 말렉스 스미스가 삼진으로 물러나 패색이 짙었다.

탬파베이는 9회말 2사 후 토니 팜이 안타를 때려내 2사 1루를 만들었고, 최지만은 타석에 한 번 더 들어설 기회를 잡았다.

상대 좌완 볼렌 투수 브래드 핸드를 상대한 최지만은 2구째 시속 93.8마일(약 151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노려쳤고,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최지만의 시즌 8호 홈런.

1점차 패배 위기에 몰렸던 탬파베이는 최지만의 끝내기 홈런으로 짜릿한 6-5 승리를 가져왔다. 4연승

을 달린 탬파베이는 79승(64패)를 수확했다. 또 홈경기 12연승을 질주해 구단 홈경기 최다 연승 신기록도 작성했다.

최지만이 바리그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지만이 메이저리그에서 좌완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낸 것도 이번이 개인 통산 최하다. 이날 경기 전까지 바리그에서 때려낸 홈런 14개는 모두 우완 투수를 상대로 친 것이다.

이날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기 전까지 최지만은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다.

1회말 상대 에이스 코리 클루버를 상대한 최지만은 클루버의 컷 패스트볼에 연신 헛스윙을 해 3구 삼진으로 돌아섰다.

탬파베이가 3-1로 역전한 2회말 2사 만루에서는 클루버의 4구째 시속 89.4마일(약 143.9km)짜리 컷 패스트볼에 왼쪽 허벅지를 맞았다. 최지만은 타점을 기록했다.

최지만은 선두타자로 나선 5회말 올리버 페레스와 풀카운트 승부를 벌인 끝에 삼진을 당했고 7회 2사 1루에서는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잡잡하던 그의 방망이는 9회말 결정적인 순간에 날카롭게 돌아갔다.

4타수 1안타 3타점 1득점을 기록한 최지만은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최지만은 시즌 타율 0.275(153타수 42안타)를 유지했고 시즌 타점은 27개로 늘어났다.

뉴스

# ‘FIFA-FIFPro 베스트 11’ 최종 후보 55명 공개

65개국 2만5000명 경쟁...호날두·부폰 포함



2017~2018 시즌 각 포지션을 빛낸 최고의 축구 선수 후보 55명이 공개됐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 선수협회(FIFPro)는 10일(현지시간) FIFA-FIFPro 월드 일레븐 2018 최종 후보들을 발표했다.

후보군은 골키퍼 5명, 수비수 20명, 미드필더 15명, 공격수 15명이

공격수 3명을 결정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잔루이지 부폰(유벤투스)은 13년 연속으로 후보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호날두는 11차례나 베스트 11에 뽑혔다.

또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오른 무함마드 살라(리버풀),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도 이름을 올렸다.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도 변함 없이 후보군에 들었다.

후보들 중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 대표팀 멤버인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은골로 칸테(첼시), 뱁자렐 파바로(슈투트가르트),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뮈엘 울티타(바르셀로나), 라파엘 바란(레알 마드리드) 등 7명이 포함됐다.

뉴스

# KT 위즈, 신인드래프트 1순위로 이대은 지명

현재 경찰야구단서 18경기 등판 5승6패1세이브

프로야구 KT 위즈가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이대은(29·경찰 야구단)을 지명했다.

‘2019 KBO 2차 신인 드래프트’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총 1072명이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267명, 해외 야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10명이 지원했다.

이번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지명 순서는 2017년 성적의 역순인 KT-삼

성-한화-넥센-LG-SK-NC-롯데-두산-KIA 순으로 진행되며 라운드별로 구단 당 1명, 최대 100명의 선수들이 KBO 리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될 예정이다.

KT는 1라운드에서 예상대로 이대은을 선택했다. 이대은은 2007년 신일고를 졸업한 후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다. 마이너 리그에서 뛰면서 바리그 진출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5년부터 2년간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었으며,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고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도 활약했다.

이대은은 현재 경찰 야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해 18경기에 등판해 5승 6패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3.83을 기록했다.



지역구별 마케팅 조경본지침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실이 있는

#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미골, 화연사, 설진강, 온조루, 파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